

자이언티, 6년 만에 정규 발표

리닝타임 30분 분량 10곡 수록
“자전적이고 편안한 음악 위주”



“집들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약 6년 만에 정규 앨범을 내면서 기자들과 만난 가수 자이언티가 처음으로 건넨 인사가 그렇다. 보통의 인터뷰와는 사뭇 다르게 가정집 같은 스튜디오에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자이언티의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연출이 됐다. 집처럼 편안한 음악을 내고 싶었다는 그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 직접 설명과 함께 들려준 총 10트랙은 인터뷰 현장처럼 포근하고 아늑했다.

정규 3집 제목은 ‘집(Zip)’이다.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곡을 내는 것 자체가 무려 2년 전이다.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싱글 ‘신물을 고르며’가 마지막이었다. “티는 안 낚지만 바쁘게 지냈어요. 회사도 설립했고, 엠넷(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10’ 프로듀서도 했어요. 감사하게도 히트도 했었고요. 한 마디로 직업인으로서 일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아티스트로서는 오래 됐다고 생각해요. 최근작이 싱글이어서 또 싱글을 내기는 어렵고, 리스너들이 아쉬워하겠다는 생각으로 정규 앨범을 내게 됐어요.”

앨범의 출발점은 ‘집’이라는 콘셉트였다. 처음에는 전자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고려했지만 결국 편안한 음악을 내고 싶다는 생각에 도달하면서 집을 떠올렸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기에 딱 알맞았다. 여기에 여러 장르를 한꺼번에 담은 압축 파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염두에 뒀다.

“실험적인 트랙도 있긴 해요. 다른 면에서 실험적이죠. 재즈가 주를 이루요. 아쉬웠던 게 유흥사에 장르를 재즈로 등록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문세 선배님과 함께 한 ‘눈’도 스탠드 재즈인데 가요는 재즈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안타까웠어요. 발라드나 알앤비(R&B)라고 등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험적

인 면이 있어요.”

스스로 재즈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 어쭙잡게 시작했다가 망신당하기 쉬운 장르라고 생각했기에 많은 실험을 겪었다. 그래미상을 수상한 재즈 트럼펫 연주자 베니 베넥 3세(Benny Benack III)가 피쳐링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국내에서 가장 존경하는 재즈 아티스트 윤석철이 피쳐링한 ‘불 꺼진 방 안에서’ 등이 대표적이다. 자이언티는 “주변에 재즈 전공 아티스트들도 있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랑한다”며 “재즈는 배운 자들의 음악이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의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동료 아티스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중간점을 찾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흡족해했다.”

타이틀곡은 트립플로이다. 모두 자이언티의 평소 생각과 호기심이 담겼다. 첫 번째 타이틀 ‘언러브(UNLOVE)’는 플레이리스트에 넣었던 곡을 지우기 위해 언러브 버튼을 누르는 것을 상상하며 시작된 노래다. 영국의 일렉트로닉 듀오 ‘혼네(HONNE)’와 함께 작업해 유려피안 팝 사운드가 완성됐다. “사랑하던 사람과 관계 정리를 하게 될 때를 두고 ‘리셋중후군’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다고요. 새로운 세대 청년들이 피드에 글을 올리고 캡션을 지우고 하는 것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데 무감해졌다고 해요. 전 뮤지션으로서 음악이 나온 지 오래돼서 리스너들이 제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서 지운다고 생각하니 슬프더라고요.”

두 번째 타이틀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과연 내가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된 노래다. 자이언티는 “사람마다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어두운 면 같은 게 있지 않나.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빈티지한 매력의 재즈풍 곡

이다.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최민식이 출연한다. 최민식은 클로즈업된 얼굴 하나만으로 여러 감정을 전달한다. 자이언티는 “정말 영광이다. 최민식 배우님이 한 번도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 없다고 하더라”며 “최민식의 얼굴과 목소리는 누구나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 들여다볼 기회가 없다. (이 뮤직비디오가)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타이틀 ‘브이피스’(V(Peace))는 혼성 듀오 ‘악뮤’가 피쳐링했다. 악뮤 이전혁은 가사도 함께 썼다. 자이언티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브이 포즈를 하고 찍지 않나. ‘이 공통적인 움직임은 뭐지?’에서 시작됐다”며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이어 “1990~2000년대 일본 시부야 케이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음악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녀 혼성 스킨드랜치 소스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외 수록곡들은 각기 다른 매력이지만 이질감 없이 어우러진다. 앨범의 매뉴얼 같은 인트로곡 ‘하우 투 유스(How To Use)’부터 전체 분위기를 이어주는 ‘투명인간’, 전체 트랙을 내리는 ‘해피엔딩’까지 10곡의 트랙 배치가 인상적이다. “이전 앨범을 보면 손 가는 대로 배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악을 듣는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스트리밍 문화가 정착돼서 아무 생각 없이 연결해서 듣게 되죠. 제 앨범을 통으로 들었을 때 가장 듣기 좋은 순간은 아침에 몸을 일으킬 수 있을 때 틀어놓고 약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리닝타임이 30분 정도로 짧거든요. 택시나 지하철 안에서 전체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래 걸린 만큼 곳곳에 공들인 작업이 었다. ‘솔직하고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는 코드가 일맥상통한다. 자이언티는 “지식도 더 생겼고 예술에 대한 고찰이 생겼다. 클래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결과물에 만족했다. 음악 소비문화가 바뀌면서 아티스트들이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시대에기에 이런 면밀한 작업은 더 의미 있다.

“싱글 2~3장 내는 게 정규 앨범을 내는 것보다 수입이 많을 수 있어요. 예산면에서도 싱글이 좋고요. 지금 시대에 정규 앨범이 더 크기에 느껴지는 건 아티스트들이 음원 판매를 큰 생계 요소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 요소로서 정규 앨범이라는 게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예요.”

데뷔 12년을 맞이하는 자이언티도 해마다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그가 내린 결론은 리브랜딩이다. “앨범을 내는 게 5~6년 전이니까 중2였던 친구들이 스무살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 들려줄 음악을 내고 싶어요. 기준점을 낮췄어요. 수치적으로 40~50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100~200을 생각할 수 있는데, 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려고요. 1만 만들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은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예요. 이 업계 안에서 어떻게 인재로 클 수 있을지 생각해요. 뮤지션이 아니라 인재로서 영향력 있고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었으면 해요.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로서 어디까지 좋은 영향과 영감 줄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신인 감독이나 뮤지션, 비주얼 아티스트들에게 영감받으면서 녹슬지 않고 싶어요.”

블랙핑크, YG와 ‘그룹 활동’ 재계약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자신들을 발굴한 YG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YG는 6일 “블랙핑크와 신중함 논의 끝에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랙핑크는 YG의 지원 속에 신규 앨범 발매는 물론 다시 초대형 월드투어를 돈다.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블랙핑크와 인연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블랙핑크는 당사는 물론 더 나아가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세계 음악시장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들의 행보에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다만 네 멤버별 개별 계약은 아직 협의 중이다. 그래도 YG는 지난 8월8일 블랙핑크 데뷔 7주년 이후 끌어온 완전체 활동에 대한 확답을 멤버들로부터 받은 만큼 한숨을 돌리게 됐다. K팝 업계는 일부 멤버가 개별 활동을 위한 예이전시를 차리고 팀 활동은 YG를 통해 계속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추정해왔다.

◆블랙핑크, 곧 K팝 걸그룹의 역사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의 역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YG가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을 위해 실험을 기울인 이유다.

블랙핑크는 2016년 8월8일 더블 타이틀곡 ‘휘파람’·‘봄바야’를 내세운 싱글 ‘스퀘어 원(SQUARE ONE)’으로 데뷔했다. 화려한 외모로 대형 기획사 YG를 등에 업고 주목 받은 팀. 블랙핑크를 평가절하 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문구’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기 전까지 네 멤버 각자의 상당한 피·땀·눈물이 섞여 있었다.

배우를 꿈꾸다 비교적 뒤늦게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수(28),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제니(27),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로제(26), 태국이 고국인 리사(26)까지. 2020년 공개된 넷플릭스 최초 K팝 아티스트 다큐멘터리 ‘블랙핑크:세상을 밝혀라’(Blackpink: Light Up the Sky)는 ‘셀럽 블랙핑크가 아닌 인간 김제니(제니)·김지수(지수)·로제(박채영)·리사(라리사 마노반)’를 돌아봤다.

정국, 빌보드 ‘핫100’ 또 세 곡 진입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 외에도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을 비롯한 K팝 가수들이 이번 주에도 미국 빌보드 각종 차트에서 선전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12월9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의 첫 솔로 앨범 ‘골든’이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 대비 1계단 반등한 15위에 자리하며 총 4주간 진입했다.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 뷔(V)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는 176위에 재진입하며 해당 차트에 총 8주간 머물렀다.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는 정국의 솔로 싱글 ‘3D(feat. Jack Harlow)’가 72위로 재진입했다. 정국은 ‘골든’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80위), 호주 래퍼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영국 래퍼 센트럴 시(Central Cee)와의 협업곡 ‘투 머치(TOO MUCH)’(92위) 등이 차트에 총 3곡을 포진시켰다.

정국은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도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했다. 연말을 맞아 캐럴(Carol) 장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200’에서 ‘세븐(Seven)(feat. Latto)’(9위),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10위)가,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세븐’(4위), ‘스탠딩 넥스트 투 유’(6위), ‘3D’(10위)가 ‘톱 10’을 지켰다.

한편, 지민과 뷔도 글로벌 차트에서 순항 중이다. 지민 솔로 앨범 ‘페이즈1’ 타이틀곡 ‘라이

작년 정규 2집 ‘본 핑크’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픈 앨범차트 톱 100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두 차트를 동시에 거머쥔 K팝 그룹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BTS)뿐이다. 또 지금까지 K팝 그룹 중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곡을 가장 많이 올린 그룹은 방탄소년단(27곡)인데 블랙핑크가 9곡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또 K팝 걸그룹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걸그룹 역사도 다시 쓰고 있다. 걸그룹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 2008년 4월5일 자에서 미국 그룹 ‘다니티 케인(Danity Kane)’이 ‘월킹 투 더 달하우스’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14년 5개월 만이었다. 또 2001년 팝 슈퍼스타 비온 세 등이 속했던 미국 걸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Destiny’s Child)’ 이후 21년 만에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동시에 1위에 거머쥔 여성 그룹이라는 기록도 썼다.

또 작년과 올해 K팝 걸그룹 최다 관객인 180만명을 모은 월드투어 ‘본 핑크’로 최근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무엇보다 블랙핑크 멤버들의 또 다른 인기 요인 중 하나는 고급스럽다는 것이다. 제니, 지수, 리사, 로제 네 멤버 모두 패셔니스타로 통한다. 각각 ‘인간 사벨·디올·셀린느·생로랑’으로 불리며 명품 모델로 활약 중이다. ‘고급 백화점 1층 점령 걸그룹’으로도 통하는 이유다. 수많은 여성들이 따라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강렬한 음악과 이런 이미지들을 기반 삼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의 표출도 블랙핑크 인기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에겐 팬덤 ‘아미’가 있다면, 블랙핑크엔 팬덤 ‘블링크’가 있다. 남성 팬뿐만 아니라 여성 팬도 상당수다. 미국의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 세일럼 일리스도 블링크를 자처한다. 현재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9210만 명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 1위다.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홍보대사로 활약한 점을 인정 받아 최근엔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대영제국훈장(MBE)을 수훈하면서 ‘톱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했다.

블랙핑크가 완전체 활동을 자사에서 이어가기로 하면서 YG의 미래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블랙핑크는 현재 YG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아티스트 재산권(IP)이다.

YG 대표 보이그룹 ‘트레저’는 일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YG 보이그룹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행보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YG를 K팝 대표 기획사 중 한곳으로 만들어준 ‘빅뱅’ 멤버들은 모두 YG를 떠난 상황이다. 최근 데뷔한 신인 걸그룹 ‘베이비문스터’가 기대주인데, 블랙핑크가 강력한 지원사격할 수 있게 됐다.

뉴진스 ‘갯 업’, 美 ‘빌보드 200’ 19주 차트인

K팝 걸그룹 최장 차트인 도전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미니 2집 ‘갯 업(Get Up)’이 해외 각종 연말 결산에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에서 또 역주행하며 새 기록을 세웠다.

5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12월9일 자)에 따르면, 뉴진스의 ‘갯 업’은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전주 대비 37계단 반등한 80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갯 업’은 해당 차트에 1위(8월5일 자)로 진입한 뒤 19주 연속 머물렀다. 걸그룹, 보이그룹 통틀어 4세대 K팝 그룹 음반 차트인

최장기간 ‘타이 기록’이다. 기존 K팝 4세대 그룹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의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과 기록이 같다.

특히 뉴진스의 ‘갯 업’은 계속 재조명되면서 K팝 걸그룹 ‘빌보드 200’ 최장 진입 기록에도 도전하게 됐다. K팝 걸그룹 전 세대를 통틀어 현재 ‘빌보드 200’에 가장 오래 머문 음반은 ‘블랙핑크’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이다. 해당 차트에 총 26주간 머물렀다.

‘갯 업’은 최근 뉴유타입스, 폴링스톤 등이 뽑은 ‘올해의 음반’ 명단에 들었다. 뉴진스는 ‘갯 업’과 올해 초 발매한 싱글 ‘OMG’ 관련 활약으로 ‘마마 어워드’에서 대상 두 개 포함 4관



왕, ‘멜론 뮤직 어워드 2023’에서 대상 두 개 포함 5관왕을 안는 등 연말 시상식도 휩쓸고 있다.

한편,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도 뉴진스의 곡들이 장기간권 중이다. ‘글로벌 200’에선 ‘슈퍼 사이’가 115위, ‘갯즈’가 135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글로벌(Excl. US)에선 ‘갯즈’ 76위, ‘슈퍼사이’ 79위, ‘디토’ 130위, ‘OMG’ 158위, ‘ETA’ 182위다.



크 크레이지’는 ‘글로벌(미국 제외)’ 67위, ‘글로벌 200’ 112위로 36주 연속 순위권에 들었다. 뷔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Slow Dancing)’은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140위로 12주 연속 차트인했다.